

Kang Score

내 삶은 주의 것

김명선

2026년 9월 27일 “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”

축복 “주님만이 왕이십니다.”

찬양 ‘내 삶은 주의 것’ 또는 ‘주 안에 있는 나에게’ 찬송을 드립니다.

말씀읽기 창세기 12장 6-8절

*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생각이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 나눠봅시다.

*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네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?

1) 1절

히브리어 ‘베토크’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?(설교중)

2) 2-3절

3) 4절

‘칭송하고’, ‘감사하며’, ‘찬양하게’ 각 단어의 의미를 말해 봅시다.

이 단어의 순서를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.

4) 5-6절

*우리의 마음은 나침반과 같아서, 내 곁에 강력한 자석(자녀, 돈, 안정, 사람의 인정 등)이 있으면 방향을 잃는다고 했습니다. 요즘 내 삶의 나침반을 흔들리게 하는 나만의 ‘자석’은 무엇입니까?

*다윗은 사람들이 은혜를 ‘기억하게(레하즈키르)’ 하도록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.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왕이 되는 ‘자기중심성’에 빠지기 때문입니다. 최근 내가 무감각해졌거나 ‘당연한 것’으로 여겨버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.

*신앙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서 ‘항상(타미드)’ 계속되는 삶이어야 합니다. 설교중 제안한 세 가지 실천 중, 이번 주 내 삶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구체적으로 결단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?

*아침의 5분을 주님께 드리며 하루 시작하기

*하루를 마칠 때 감사 일기(은혜의 기억) 기록하기

*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서 3초간 ‘멈춤의 기도’ 훈련하기

함께 기도하기

*우리 가정과 일상의 한가운데(베토크)에 하나님을 모시고, 매 순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.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영적 망각에서 벗어나 늘 기억하게 하시고, 그 사랑과 위로를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. 일상의 분주함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‘항상(타미드)’ 주님을 바라보는 멈춤의 기도를 실천하여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.